

치매 부모 보며 멍드는 가슴...어버이날이 더 슬프다

나주 한 병원에서 치매환자·가족 만나보니

1년에 한 번, 부모와 함께 감사하는 마음과 사랑을 나누는 어버이날이 치매 환자와 그 가족들에게는 오히려 '1년 중 가장 가슴 아픈 날'이다.

가족들은 "치매를 앓고 병원에 있는 기간이 정을 끊는 시기"라는 말에 속을 끓이면서도 돌봄에 지쳐 힘들어하고 있다. '마음을 앗아가는 병'을 앓는 부모를 지켜보는 자녀들 마음도 타들어간다.

어버이날을 하루 앞둔 7일 나주 한 병원에서 만난 치매 환자들은 "어버이날은 쓸쓸한 날"이라며 말 끝을 흐렸다.

치매 환자의 경우 가족이 면회를 와도 의사소통에 어려움을 겪는 경우가 대부분이다. 지난 연휴 동안 자녀들을 만난 치매 환자들은 이들이 "밥먹었어?" "엄마 나 알아보겠어?" 등 질문에도 제대로 고개를 끄덕이거나 대답하지 못하는 이들도 많았다고 한다. 그럼에도, 환자들은 기억을 어렵쫓았던 어버이날의 기억을 더듬어 떠올렸다.

병실에서 허공을 바라보던 구모(여·88)씨는 어버이날에 대해 묻자 "아들 딸 한 명씩. 둘다 안 본 지 좀 됐다"며 "예전에는 완도에서 양식장을 크게 했는데 지금은 애들이 이어서 하고 있다. 바쁘니까 오라고 안 한다"고 말했다.

바로 옆 병실에 있던 박모(여·83)씨 역시 "보고 싶은 마음은 항상 있는데 병원에 있으니까 잘 못 본

자녀들 면회 가도 의사소통 어려워 그리움 삼키며 마음만 타들어가

광주·전남 노인 10명 중 1명 치매 돌봄인력 부족에 간병비 부담까지 환자도 가족도 '먹먹한 어버이날'

다"며 "몸이 아프니 먹는 것도 마음대로 못하고 힘들다. 요즘 (가족들이랑) 같이 지내던 옛날 생각난다"고 눈물을 떨궜다.

치매 환자를 돌보는 가족들 마음의 짐은 무겁다. 서구 금호동에서 거주하는 박미영(58)씨는 5개월째 치매를 앓고 있는 84세 어머니를 남편과 함께 살고 있는 집에서 모시고 있다. 1년 전만해도 KTX를 타고 서울과 광주를 왔다갔다 할 만큼 정정했던 박씨의 어머니는 지난해 허리를 다친 이후 거동이 어려워졌고, 동시에 치매 증상까지 생기면서 가족의 일상도 달라졌다.

박씨는 "예전엔 어버이날엔 용돈도 드리고, 맛있는 것도 같이 먹으러 갔는데 올해는 느낌이 많이 다르다"며 "팔로써 가장 힘든 건 이 상황이 언제 끝날지 모른다는 점이다. 다른 병은 시간이 지나면 낫기도 하는데 이견 끝이 없다. 옆에서 계속 보다보니 감정기복도 심해졌다. 어머니 상태가 좋아졌을 땐



어버이날을 하루 앞둔 7일 나주의 한 병원에 입원해있는 치매환자들이 병상에 누워있다.

나도 할수 있다고 버티다가도 순간 너무 지쳐 막막해질 때가 온다"고 고개를 떨궜다.

농성동에 거주하는 나형석(43)씨는 5년째 치매를 앓고 있는 아버지와 요양보호사처럼 살뜰히 챙기는 어머니 걱정이 이만저만이 아니다.

나씨는 "어머니는 젊으셨을 땐 자식들 카우노라, 지금은 아버지를 돌보시느라 신경을 쓰신다"며 "해마다 나이 드시는 게 보이는 데 아버지를 챙기시다가 아프시지 않을까 걱정이 되고 마음이 늘 편치 않다"고 말했다.

나씨의 어머니 조순순(여·67)씨는 "남편 머리 감는 것도, 양치질도 내가 옆에서 챙겨줘야 할 정도인데 그렇게 건강했던 남편 생각을 하니 별거 아닌데 눈물이 나더라"고 밝혔다.

광주·전남 지역은 전국에서 가장 고령화가 심한 지역으로 꼽히는 가운데 65세 이상 인구 10명 중 한 명은 치매를 앓고 있는 상황이다.

광주시치매센터에 따르면 지난해 3월 기준 광주의 60세 이상 추정 치매 인구는 2만 2869명에 달하고 이들의 추정 치매 유병률은 6.64%인 것으로 집계됐다. 65세 이상의 경우 추정 치매 인구수는 2만 1791명, 추정 치매 유병률은 9.08%다.

전남의 경우 60세 이상 추정 치매 인구는 5만 855명이며 치매 유병률은 7.89%다. 65세 이상은 추정 치매 인구는 4만 9055명으로 치매 유병률은 10.26%다.

그럼에도 치매 돌봄 인력이 충원되지 않는 등 '치매 인프라'는 좀처럼 확충될 기미를 보이지 않고 있다. 전남에 있는 총 22개 치매안심센터 중 19곳(86.4%), 광주 5곳 중 3곳(60%)은 필수인력을 구하지 못해 허덕이고 있다. 치매환자들에게 들어가는 1인당 간병 비용도 재가복지 연간 1733만원으로 시·군·구별 3138만원 등에 달해 치매 환자를 간병하는 가족들의 부담도 커지고 있다. 이들에게는 어버이날은 항상 슬프다.

/글·사자=김진아 기자 jinggi@kwangju.co.kr

선팅 진한데...안전띠 단속 제대로 될까

별다른 장비 없이 육안에 의존 경찰 대대적 단속 실효성 의문

경찰이 전국적으로 '안전띠 단속'에 나서기로 했다. 투시 안경이 있는 것도 아닌데, 자동차 창문 틈팅(선팅) 처리를 진하게 한 차량 내부 운전자의 안전띠 착용 여부를 파악할 수 있을까.

경찰청이 최근 전국에서 안전띠 미착용 관련 교통사고가 빈발한 724개 구간에서 안전띠 단속을 실시하기로 하자 실효성에 의문이 제기되고 있다.

경찰 관계자는 "속도를 늦출 수밖에 없는 구간에서, 읍·면 등 다른 단속과 병행해서" 단속하는 것이라며 안전띠 착용 여부만 단속하는 건 아니라고 밝혔다. 또 차량이 횡단보도를 지나거나 우회전을 해야 하는 등 상황에서는 천천히 달릴 수밖에 없는데, 이 때 육안으로도 확인할 수 있다는 게 경찰 설명이다. 하지만 승용차, 화물차를 막론하고 틈팅 처리를 한 차량이 대부분인데도, 경찰이 별다른 장비 없이 육안에 의존해 단속하겠다고 나서면서 '보여주기식' 단속이라는 지적이 나온다.

단속 구간은 광주 22개 구간, 전남 82개 구간으로, 광주의 경우 광산구 운남동 목련교차

로 내, 수완동 지하차도 입구, 오산동 오산교차로 옆 도로, 신창동 부영1차아파트 앞 사거리, 동구 학원IC 순환도로 입구, 장동 장동로터리, 학동 남광주사거리, 소태동 소태역교차로 등이다. 또 서구 치평동 5·18기념공원앞교차로, 유촌동 계수교차로, 쌍촌동 상무지구입구교차로, 광천동 광천사거리, 농성동 농성교차로, 남구 용산동 순환도로입구, 송하동 광주대 입구, 행암동 행암교차로, 백운동 서문대로·대남대로, 북구 용봉IC 출구, 연제동 빔고을대로 출구, 신용동 빔고을대로 입구, 월출동 월출교차로 등도 단속 대상이다. 이들 집중 단속 대상지는 교통 사고 발생 시 안전띠를 착용하지 않은 것으로 드러난 장소들이라 경찰의 육안 안전띠 단속이 가능할 지는 미지수다.

경찰도 이같은 지적을 의식한 듯 안전띠 단속을 위해 경력을 집중 배치하는 것은 비효율적이라는 입장을 갖고 있다.

광주경찰청 관계자는 "승용차에서 안전띠를 착용하지 않으면 경고음이 울리는 등 이유로 안전띠 착용률이 70% 이상까지 높아졌지만 화물차 등을 운행하면서 안전띠를 매지 않는 사례가 적발되고 있다"며 "작은 사고도 큰 인명피해로 이어질 수 있으므로 안전을 위해 안전띠를 매는 운전 습관을 갖기 바란다"고 당부했다.

/유연재 기자 yjyou@kwangju.co.kr

무안공항 방위각 시설 교체 등 안전성 개선 연내 추진

하반기 조류탐지 레이더 설치 활주로도 3160m로 연장키로

전남도가 정부의 추가경정예산안 편성으로 무안공항의 조류탐지 레이더와 방위각 시설 등의 안전성 개선<광주일보 4월 23일 7면>을 연내 추진키로 했다.

7일 전남도에 따르면 국토교통부가 지난달 30일 발표한 '항공안전 혁신 방안'에 따라 올해 8월까지 콘크리트 둔덕형 방위각 시설을 경량 철골 구조로 전면 교체한다. 또 국제민간항공기구(ICAO) 권고 기준에 맞춰 현재 199m 길이의 중단안전구역

길이를 240m 이상으로 확대한다. 활주로 또한 2800m에서 3160m로 연장한다.

제주항공 여객기 참사의 원인으로 지목된 조류 충돌을 방지하기 위한 대책도 추진된다. 하반기 중 조류탐지 레이더를 설치해 인근 조류의 움직임을 실시간으로 감시하고 분석하게 된다. 전국 공항 중 유일한 장비로 무안공항의 항공 안전성 개선에 핵심 역할을 할 것으로 보인다.

또 열화상 카메라와 음파 발생기 등 조류 충돌 방지를 위한 장비 역시 8월까지 도입되며, 조류 대응 전담 인력을 4명에서 12명으로 대폭 늘린다. 국토교통부는 이와함께 조류 퇴치용 드론 개발 사업을 추진해 무안공항에서 실증사업을 실시할 계획이다.

조류 유인시설 관리구역도 기존 공항 반경 3~8km 이내에서 최대13km까지 확대하고, 조류 감시용 CCTV와 데이터 분석 기능을 담당하는 통합감시센터를 내년부터 시범 운영한다.

여수공항 또한 방위각 시설이 설치된 4m 높이 둔덕을 낮추고 경량 구조물로 교체된다. 조류 탐지 레이더도를 도입하기로 했다.

김영록 전남지사는 "이번 항공안전 혁신 방안이 무안국제공항의 재도약을 이끄는 전환점이 될 것"이라며 "무안국제공항이 전국 최고 수준의 안전성과 세계적 경쟁력을 갖춘 서남권 관문공항으로 거듭나도록 총력을 쏟겠다"고 말했다.

/김민석 기자 mskim@kwangju.co.kr

“제주항공 참사 신속 규명·조사 현황 공개하라”

광주 지역 변호사·유가족들 촉구

광주 지역 변호사들과 12·29 제주항공 참사 유가족들이 국토교통부 항공철도사고조사위원회(사조위)에 대해 사고에 대한 신속한 진상 규명과 조사 현황 공개, 책임자 처벌을 촉구했다.

광주지방변호사회 제주항공참사 법률지원단·민주시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민변) 광주전남지부는 7일 성명서를 내고 “사조위는 철저하고 신속한 진

상규명을 하고, 모든 조사 과정과 자료를 투명하게 공개해 유족과 국민의 알 권리를 보장해달라”고 요구했다.

단체들은 “참사가 발생한지 4개월이 됐지만 사고 원인은 안갯속이다”며 “사조위는 진실을 밝히려는 모습보다, 정보를 감추고 진실을 은폐하려는 것이 아닌지 의혹이 커지고 있다”고 주장했다.

단체들은 아직 해소되지 않은 의혹으로 조류충돌 직후 비행 시도 이유, 비행 직후 기수를 180도 꺾어

긴급 동체착륙한 이유, 문제점 대응의 적정성, 엔진 유지관리 적절성, ▲주로 둔덕의 설치·관리 및 보강 공사 규정 위반여부, 블랙박스 기록이 멈춘 뒤 사고기가 동력이 필요한 비행한 점 등을 제시했다.

12·29 제주항공 여객기 참사 유가족들도 같은 날 성명서를 내고 “무려 179명이 사망한, 국내 항공기 역사상 가장 큰 인명 피해를 낸 사건을 겪고도 4개월 넘게 지난 현재까지 어떠한 진상 규명도 책임자 처벌도 이뤄지지 않았다”며 “사조위는 유가족에게 사고와 관련된 모든 정보를 공개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유연재 기자 yjyou@kwangju.co.kr

“시를 꽃처럼 피워 주변을 시꽃으로 밝히고 싶습니다.”

사람 때문에 힘들고 사람 때문에 상처 받아도 시가 만나야 할 궁극적인 대상은 사람입니다.

조선의 시인 문예지 ‘시꽃피다’ 창간



조선의 시인

농민신문신춘문예 당선, 기독교신문에 당선, '미션21' 신춘문예에 당선, 상상인 작품상, 송문문학상, 김만중문학상, 거제문학상, 신석정충분문학상 등 수상.

『아직 도달하지 않은 입의 문장』 『빛을 소환하다』 『꽃 향기의 밀서』, 『꽃으로 오는 소리』 등 발간.

〈시꽃피다〉 광주 시장작 강사, 〈시꽃피다〉 전북지역 시장작 강사, 서울 성동구 평생교육원 시장작 강사, 담양문화원 시쓰기 강사

